



협회, 금호타이어 중국 천진연구소 준공 전 안전진단 실시

협회는 지난 9월 중국 천진에 소재한 금호타이어 천진연구소에 대해 화재 및 폭발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준공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국내 방재전문기관의 외국 소재 건축물에 대한 방재활동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안전진단은 중국의 화재안전기준 뿐만 아니라 NFC, FM 등 선진 기준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사전에 검토한 설계도면대로 적정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경영방침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를 그룹 지정 방재기관으로 선정하여 화재예방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 그룹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준공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화재발생위험, 소화·경보·피난 등 방재시설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한편, 협회는 화재·폭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설립된 법정 방재전문기관으로 매년 20,000여 건의 특수건물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0여 건의 국내·외 사업장에 대해 방재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 방재시험연구원 전경

연구원, '원자력발전소(울진 1, 2호기) 화재위험도 분석' 실시

방재시험연구원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원자력발전소 화재안전성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울진 1, 2호기에 대한 화재위험도 분석(FHA ; Fire Hazard Analysis)을 실시한다. 화재위험도 분석은 원전 내 방화 지역별로 화재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설비가 화재방호규정에 부합되도록 설치·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재시험연구원은 원자력발전소 울진 1, 2호기에 대해 화재감지 및 소화·방호관련 설비, 조직행정, 화재방호계획서 등의 적합성을 평가한 후, 기술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규제요건 면제사항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는 고도의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협회가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고리, 월성에 대해 안전정지분석(SSA ; Safety Shut-down Analysis) 및 화재위험도 분석(FHA)을 기 수행한 바 있다.